

철길숲길1_주인공원

취지

길은 공간과 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전적 의미로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가 지나는 공간,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그리고 삶이나 역사의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바꿔 말하면 교통수단으로서의 길, 방도를 나타내는 길, 그리고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로 구분된다.

공간으로서의 길은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오솔길, 산길, 들길, 자갈길, 진창길, 지름길 등... 관념적 이해가 확대되면서 뱃길, 철길, 하늘길 등이 생겼다.

무선통신의 발달은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수히 많은 문자와 말이 가상의 길을 따라 다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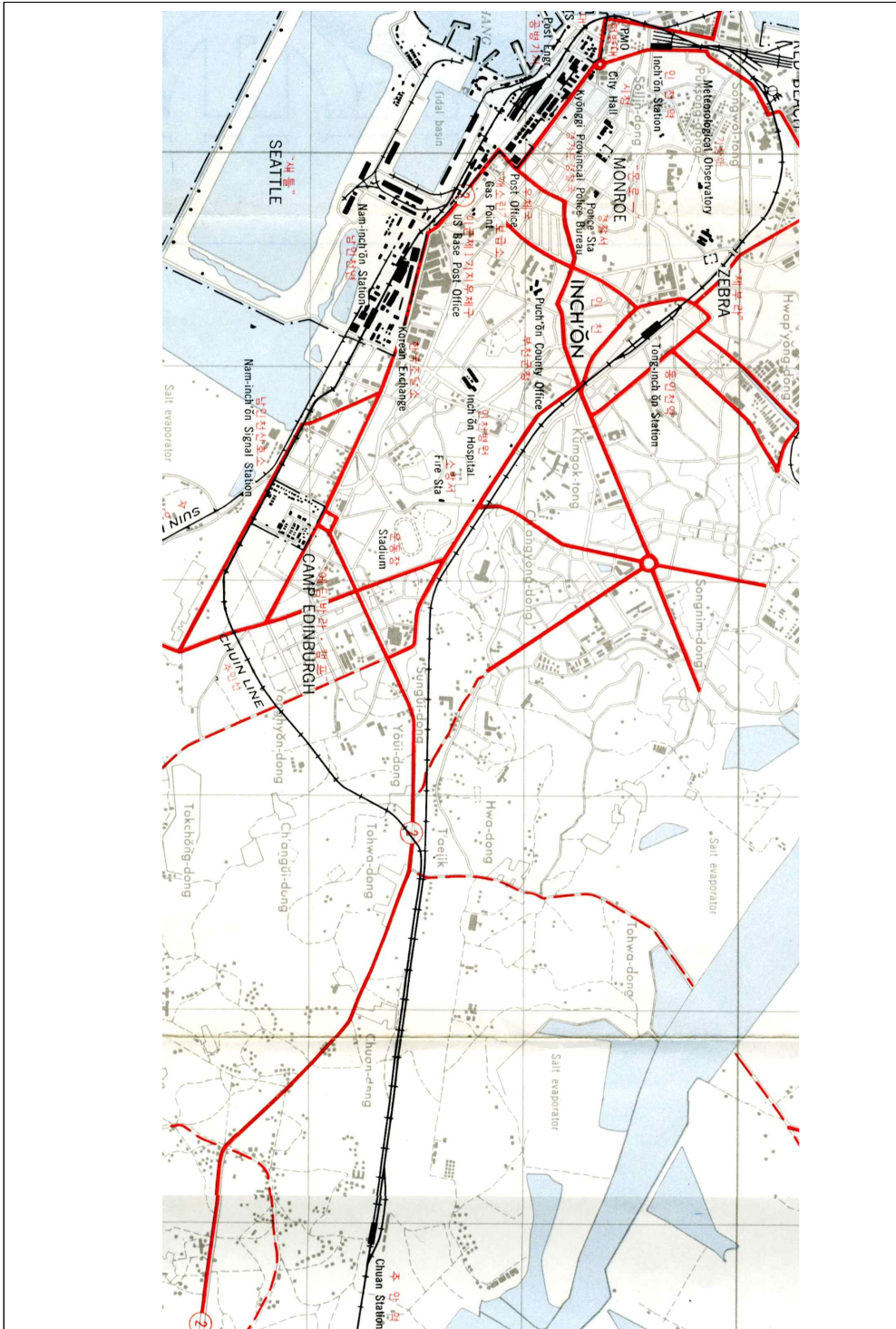
길은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단절의 통로이다.

철길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인선을 중심으로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가능한 한 키워보려고 한다.

코스

제물포역 ▶ 과도교혼적 ▶ 주인공원 ▶ 옛 남인천역 1955(인천항역 1937, 수인역 1948)

필요 물품	마실 물, 편한 복장과 운동화		
거리	2.8km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1. 제물포역



▶ 제물포역이 1959년에 생긴 때 알아? 몰라?

▶ 1957년 역 신설 계획을 입안할 때 송의역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하려고 했던 것 알아? 몰라?

- 1959년 7월 1일 간이정차장
- 1961년 8월 1일 역원 배치 간이역
- 1963년 1월 29일 운전 간이역, 12월 30일 역사 신축 준공
- 1964년 2월 20일 보통역 승격
- 1974년 8월 1일 서부역사 신축준공
-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운행 개시
- 1980년 5월 22일 일급역으로 승격
- 2004년 5월 26일 현재 역사로 신축 이전
- 2006년 2월 급행열차 정차

* 그런데 여기가 왜 제물포야?

원래 제물포는 개항 때 인천을 가르키는 말이잖아. ~포(浦)하면 물이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근처에 어디 물이 있어.

▶ 제물포역은 2016년부터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시작한 거 알아? 몰라?

2. 주인선



▶ 주인선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1956년 2월인 거 알아? 몰라?

(교통사업 5개년 계획)

- 1957년 1월 교통부 발표
- 1957년 9월(10월) 착공, 1959년 2월 준공 3.8km
- 1959년 7월 1일 개통

사업비 한화 3억 1천 5백 45만원, ICA원조 10만불

- 1959년~1985년 11월 15일 정기 1회 임시 3회 : 남인천~동두천
- 1985년 11월 15일~1989년 4월 18일 1일 임시 2회 : 주안~동두천
- 1994년 4월 22일 폐선

3. 과도교혼적





1981년 9월 확장 중인 과도교. 1997년 7월 철거.
미관상 시야가 불편(1999년 전국체육대회)



4-1. 주인공원 주변_송의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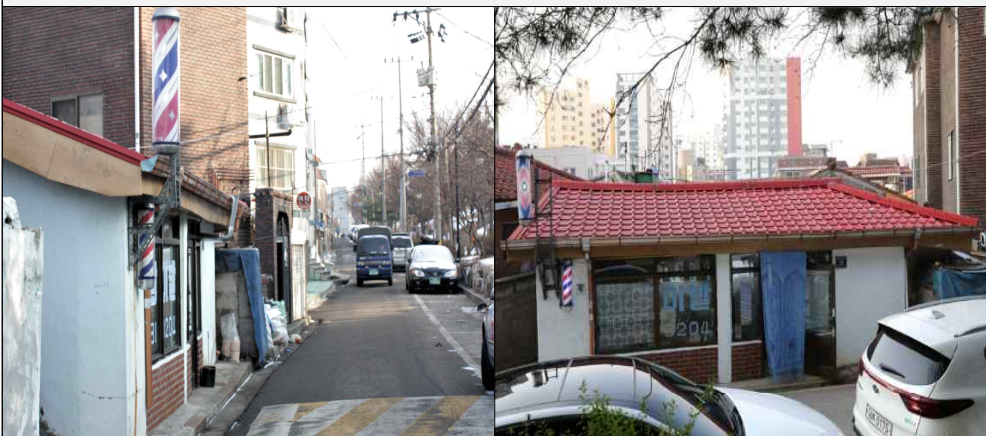
4-2. 주인공원 주변_와룡소주



4-3. 주인공원 주변_가게 간판들



4-4. 주인공원 주변_오래된 이발소



4-5. 주인공원 주변_마을



5. 옛 남부역





6. 옛 남인천역

